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회복력 모형검증

오재우*, 박인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과*,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Verific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Mod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Jaewoo, Oh*, Insook, Park**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회복력 요인의 관계양상 및 영향력을 확인하고 가족적응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간호실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대전 외곽의 도농 복합지역 및 충남 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대상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행하였으며, 최종 216부를 자료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LISREL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ANOVA,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정은 경로분석을 하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 지수는 $\chi^2 = .06(p = .812)$, $df=1$, $\chi^2(df)=.06$, GFI=1.0, AGFI= 1.0, SRMR=.002, NFI= 1.0, NNFI=1.0, RMSEA=0.000, CN=266으로 좋은 부합도를 보였다.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및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사통, 문제해결 대처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의 적응을 돕는 간호중재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돕고,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가족, 회복력 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was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he nursing practice useful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aspects and the influence of resilience factor and promoting the family adap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located in urban-rural complex area around Daejeon city and in Chungnam regio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halls among those who had resided over 1 year in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from Feb, 2012 to July, 2012 and in the end, 216 questionnaires were made the subjects of data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OVA,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LISREL. The overall index of hypothesis model showed a good congruence like $\chi^2 = .06$ ($p = .812$), $df=1$, $\chi^2(df)=.06$, GFI=1.0, AGFI= 1.0, SRMR=.002, NFI= 1.0, NNFI=1.0, RMSEA=0.000, CN=266. Looking at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suggested by the model,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family adaptation were family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hile social support, family hardnes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coping didn't affect the family adaptation. It is considered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intervention which helps the family adaptation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in a crisis situation must be done with a program which can help them have a positive view on the stress situation and reduce the stress happening in the family relationship and parenting.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Family, Resilience factor

* 이 논문은 제 1 저자 오재우의 박사학위논문 축약본임.

Received 5 March 2013, Revised 9 April 2013

Accepted 20 May 2013

Corresponding Author: In-Sook Park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ispark@c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상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저출산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족의 증가라 할 수 있다[3]. 2010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총 혼인 건수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국제결혼이 76.8%에 이르고 있다[46].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과 결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저소득층 남성이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34].

이렇듯 우리나라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 후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1], 가정 경제의 어려움[29], 차별과 편견,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37] 심각한 연령차와 이로 인한 부적응, 갈등, 가정 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보고(2006)에 의하면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학습을 요구 받고 동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배우자나 그 가족은 부인이나 며느리의 문화, 사회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 또는 차별을 하고, 심지어 금전적 가치로 따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인, 여성, 주부라는 다양한 역할부담을 가지고 낯선 문화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문제와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 이는 가족 관계 내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6]. [14]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상황적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으며, [32]의 연구에서도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가족은 위기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가족 적응 현상을 총체적으로 접근한 이론이 가족회복력 이론이다[44]. 가족 회복력이란 가족이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7]. 가족 회복력은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가족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2,14]. 즉,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이 가진 잠재적 회복력과 성장을 확신하고 현재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를 견디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가족 회복력 이론 중의 가족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사건과 가족 전환이나 가족의 변화와 구성원의 경험에 따라 지속된다. 가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요소로 가정하여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이 경험한 생활 사건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누적되면 가족 안정성, 평행과 적응을 위협하고, 가족의 기능을 붕괴시킨다[44]. 가족 일상적 스트레스 자체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것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족이 어떻게 붕괴된 경험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완충시키며, 또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과 그 가족단위의 안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적응이란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가족 노력의 산물로, 개별적인 가족원의 긍정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 개개인 또는 가족 집단이 가족 체계상에서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가족기능, 인지적 평가, 가족자원, 가족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방법을 활용하여 형성된 가족 구성원 노력의 결과이다[44].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패턴의 변화, 언어의 차이 등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있어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 부적응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27,32]. 그러나 가족은 다양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과 힘, 가치체계 등의 자원을 통해서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27].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인자는 가족 내적, 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와 스트레스에 중재인자의 역할을 하는 적응 요인이며 가족의 내적인 회복인자로 설명되고 있다. [44]는 가족 회복력 이론에서 가족의 적응은 가족이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내외의 사람, 집단, 기관 등의 특성과 능력인 가족 자원과 연관되며, 가족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행동하는지를 특징짓고 설명하는 가족 체계의 기본 속성인 가족의 유형, 그리고 가족이 체계내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특별한 노력인 가족 상황에 전체에 대한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즉 가족적응을 예측하는 회복력 인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복력인자를 가족의 상황적 평가, 가족의 관리자원, 가족유형,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의 4가지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 자원 중 사회적 지지를 [42]는 회복력 모형에서의 가족이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 단체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복지관 등의 사회단체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 친구, 교사와 같은 공식, 비공식적인 근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다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는 다른 회복력 요인을 거쳐 적응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로 가족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 [36][45]는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성공적인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강인성은 개인의 인성특성인 강인성과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42]에 의하면 가족강인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와 스트레스 중재인자의 역할을 하는 적응요인으로 서술되어 왔으며, 가족의 내적인 복원인자로 설명되고 있다. [20][21]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회복력 중 가족강인성이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고 하였다.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이란 가족 능력의 행동적 요소로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문제해결 시도나 행동을 말하며, 이는 현존하는 가족자원을 이용하고 가족단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행위와 자원을 발달시키고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상황을 보다 더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받

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과 관련된 의미를 형성하고 평가하는 가족 수준의 인지평가를 포함한다 [21]. [9]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대처전략은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긍정적인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 평가대처의 능력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가족 적응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간호에서의 대상자 개념은 가족도 간호 대상자에 함께 포함된 가족중심의 간호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가족도 역시 간호대상자로 가족 중심의 효율적 간호중재를 위해서는 우선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사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이 가족 스트레스[6][27], 문화적응 스트레스[9][11][35][39], 양육스트레스[8][23][38]에 대한 연구들이며, 이들 연구는 단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와 지원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뿐이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회복력요인을 중심으로 가족 적응을 설명하고, 모델의 적합성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가족 회복력 모형을 검증하고, 가족 스트레스, 적응의 이론에 근거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가족간호 중재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회복력 요인이 가족 적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분석을 통해 McCubbin의 회복력 모형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 회복력 모형을 기초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파악한다.

1.3 연구의 이론적 틀

회복력 요인이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회복력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족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회복력 모형[42] [Figure 1]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42]의 회복력 모형에서는 가족의 회복력 인자를 가족기능, 가족자원, 가족의 상황적 평가,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의 4가지 변수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있다[Figure 1]. 가족의 위기상황은 가족생활주기상의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긴장 등에 의해 생기는 가족 체계내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가족 안정성, 평형과 적응을 위협하고 가족의 기능을 붕괴시키게 된다. 이것은 생활사건 또는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 지닌 힘 또는 능력 및 자원(BB)과 연관되고, 가족이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집단, 기관 등의 특성과 능력인 사회적 지지(BBB)와 연관된다. 또한 가족이 전체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의 인지평가(CC)와 연관되며, 이는 가족관(CCC:family schema)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가족의 적응수준은 가족이 가족체계 내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특별한 노력인 가족 상황 전체에 대한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PSC)에 연관된다[Figure 1].

스트레스는 [14][15]의 연구에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족자원은 가족의 저항자원으로 가족의 능력과 힘을 말하는데 사회적지지, 경제적 안정성, 강인성, 가족전통과 의식, 가족일상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지지 및 가족강인성으로 가족자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기존의 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가족 붕괴사이의 일차적인 완화요인 혹은 매개요인으로 꾸준히 확인되어 왔으며 회복력 모형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넓이와 깊이는 가족적응과 관련되며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제기하고 있어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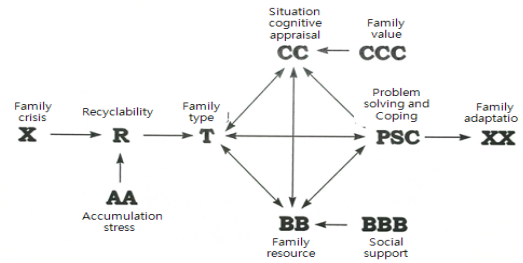
가족강인성은 가족스트레스, 대처, 가족기능의 강력한 예측인자이며 가족 내의 강인성은 지속적인 조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Failla와 Jones, 1991)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한편 [43]은 문제해결과 대처를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대처로 분리하면서 의사소통의 개념을 새롭게 첨가시켰는데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가족관과 가족강인성의 영향을 받고 가족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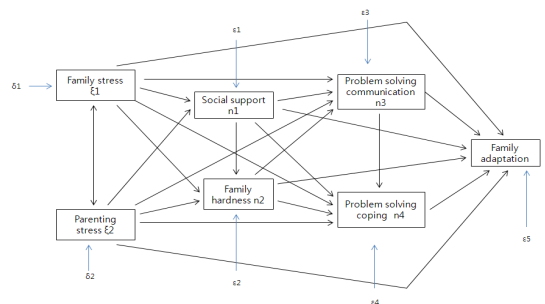
가족적응은 가족원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긴장, 두려움 등 가족안녕지표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McCubbin 등(1996)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모델의 적응단계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가족요구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족 복원요인인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를 매개로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가 외생변수로서 내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가 가족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하였고, 내생변수인 가족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가 내생변수인 문제해결 대처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 및 가족적응에 이르는 경로와 내생변수인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대처가 내생변수인 가족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g. 1] Adaptation phase of the resilience model



[Fig.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적응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 McCubbin의 회복력 모형을 기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회복력 요인인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대처간의 상호관계와 적응에 이르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조사대상은 D시 외곽의 도·농 복합지역 및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몽고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거주기간 1년 이상 10년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21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경로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측변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200-400명 정도 되어야 한다[17]. 본 연구에서 총 분석 설문지가 216부로 경로분석 모형의 적용 기준을 충족시켰다.

2.3 연구 도구

2.3.1 가족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Wilson & Patterson(1979)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초로 최동희(1990)가 제작하고 김세아(2008)가 수정·보완한 척도인 28문항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평점 척도를 적용하여 '경험한 바 없다'에 0점, '정말 심각하다'에 5점을 주어 최하 0점에서 최고 140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지수(Parenting Stress Index : PSI)를 기초로 신윤오

(2000)가 제작하고 오애영(201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McCubbin, Patterson, Glynn(1982)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SSI)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SI는 1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3.4 가족강인성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6)이 개발한 가족의 강인성 척도(FHI)를 박인숙(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제감, 협동성, 도전성의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가족임을 의미한다.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다.

2.3.5 문제해결 의사소통

McCubbin 등(1988)이 개발한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FPSC)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FPSC는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 이었다.

2.3.6 문제해결 대처

McCubbin, Olson, Larsen(1981)이 개발한 가족대처척도(F-COPES)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행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2.3.7 가족 적응

McCubbin과 Patterson(1982)에 의해 개발된 가족의 안녕척도(FMWB)를 박인숙(2001)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원의 건강, 긴장, 에너지, 즐거움, 공포, 분노, 슬픔, 일상적 관심 등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10점까지의 11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K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제 12-68).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와 질문지 작성과 면접법에 대해 교육받은 연구보조자로 간호 대학생 3명이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케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로 되는 대상자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읽어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30-5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제작한 답례품을 사례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LISREL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검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 잔차, 측정오차를 측정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한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증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서 나타나는 효과계수의 크기와 t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졸이 92명(42.6%), 중졸이

75명(34.7%)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119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은 전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112명(51.9%)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직업은 농업이 70명(32.4%), 기타가 64명(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00 - 200만원 미만이 99명(46.9%), 가족구성원의 경우 확대가족이 147명(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5세 - 29세가 83명(38.4%), 남편의 연령은 40세 - 49세가 138명(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지는 베트남이 89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63명 (29.2%), 필리핀이 42명(1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6명(59.4%),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0명(40.6%)이었다. 한국거주기간에서는 3년 - 5년이 84명(38.9%), 자녀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1명(69.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6)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	%
Highest level of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6	2.8
	Middle school	75	34.7
	High school	92	42.6
	University (including Colleges)	40	18.5
	Over graduate school	3	1.4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husband	Under elementary school	6	2.8
	Middle school	45	20.8
	High school	119	55.1
	University (including Colleges)	43	19.9
	Over graduate school	3	1.4
Job	Profession, White-collar job	14	6.5
	Service work	17	7.9
	Agriculture	31	14.4
	Self-employed	10	4.6
	Housewife	112	51.9
	Others	32	14.8
Husband's job	Profession, White-collar job	19	8.8
	Service work	29	13.4
	Agriculture	70	32.4
	Self-employed	34	15.7
	Others	64	29.6
Monthly income	Under 1 million won	39	18.5
	Over 1million won ~ Under 2 million won	99	46.9
	Over 2 million won ~ Under 3 million won	55	26.1
	Over 3 million won	15	7.1

	~ Under 4 million won		
	Over 4 million won	8	3.7
Family member	Nuclear family	69	31.9
	Extended family	147	68.1
Age	Below 24	49	22.7
	25-29	83	38.4
	30-34	48	22.2
	35-39	21	9.7
	Over 40	15	6.9
Husband's age	Below 39	48	22.2
	40-49	138	63.9
	Over 50	30	13.9
Birthplace	Vietnam	89	41.2
	China	63	29.2
	Philippines	42	19.4
	Japan	5	2.3
	Mongol	5	2.3
	Cambodia	3	1.4
	Nepal	2	0.9
	America	4	1.9
	Kazakhstan	1	0.5
Taiwan	2	0.9	
Religion	Yes	126	59.4
	No	90	40.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1-3 years	41	18.9
	3-5 years	84	38.9
	5-7 years	60	27.8
	Over 7 years	31	14.4
Children	One	151	69.9
	Two	61	28.2
	Three	4	1.9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2>과 같다. 일반적으로 표준선형모형이나 공변형의 관계구조를 검정하려면 자료의 정규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본 자료의 분포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2.0보다 적어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18점으로 보통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이 2.55점으로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13점으로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강인성은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75점으로 보통 이상의 가족강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75점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85점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은 10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5.93점으로 보통 정도로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족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 및 가족 적응간의 상관관계

가족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r=.39,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r=-.39, p<.001$), 가족강인성($r=-.49,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54, p<.001$), 문제해결 대처($r=-.24, p<.001$), 가족적응($r=-.33, p<.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r=-.54, p<.001$)과 가장 높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r=.39, p<.001$)와는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지지($r=-.21, p<.001$), 가족강인성($r=-.42,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34, p<.001$), 가족 적응($r=-.32, p<.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강인성($r=.57,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54, p<.001$), 문제해결 대처($r=.57, p<.001$), 가족적응($r=.24,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은 문제해결 의사소통($r=.71, p<.001$), 문제해결 대처($r=.44, p<.001$), 가족적응($r=.32,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강인성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N=216)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cale
Family stress	0.00	4.61	2.18	0.98	-0.25	-0.54
Parenting stress	1.33	4.85	2.55	0.71	0.78	1.01
Social support	1.94	4.65	3.13	0.44	0.67	0.82
Hardness	1.53	4.00	2.75	0.43	0.20	-0.22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1.20	4.00	2.75	0.54	-0.53	0.75
Problem solving coping	1.80	4.45	2.85	0.47	0.68	0.40
Family adaptation	1.75	10.00	5.93	1.65	0.11	-0.1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Family stres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hardnes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1.00						
Parenting stress	.39***	1.00					
Social support	-.39***	-.21**	1.00				
Family hardness	-.49***	-.42***	.57***	1.00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54***	-.34***	.54***	.71***	1.00		
Problem solving coping	-.24***	-.03	.57***	.44***	.47***	1.00	
Family adaptation	-.33***	-.32***	.24***	.32***	.24***	.10	1.00

** p<.01 *** p<.001

($r=.70, p<.001$)과 가장 높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문제해결 대처($r=.47, p<.001$), 가족적응($r=.24, p<.001$)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족적응은 사회적 지지($r=.24, p<.001$), 가족강인성($r=.32,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24, p<.001$)과 순상관관계를, 가족스트레스($r=-.33, p<.001$), 양육스트레스($r=-.32, p<.001$)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McCubbin 등(1996)의 가족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회복력과 선행연구들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확인된 유의한 영향요인에 부합하는 변수를 구성요소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3.5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gamma = -0.37, t = -5.38$)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이들 원인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6%이었다.

가족강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gamma = -0.23, t = -3.89$), 양육스트레스($\gamma = -0.24, t = -4.43$), 사회적 지지($\gamma = 0.43, t = 7.74$)이었으며, 이 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가족강인성이 이들 원인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는 45%였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gamma = -0.22, t = -4.17$), 사회적 지지($\gamma = 0.17, t = 3.14$)와 가족강인성($\gamma = 0.49, t = 8.11$)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이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7%였다.

문제해결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육스트레스($\gamma = 0.17, t = 2.74$)와 사회적 지지($\gamma = 0.43, t = 6.45$) 및 문제해결 의사소통($\gamma = 0.24, t = 2.90$)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강인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문제해결 대처가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9%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합지수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 χ^2 통계량/자유도(df),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잔차평균자승제곱근(RMR), 표준부합치(NFI), 비표준부합치(NNFI), 개량오차평균의 제곱근(RMSEA), Critical Number(CN)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Table 4>.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gamma = -0.18, t = -2.38$), 양육스트레스($\gamma = -0.19, t = -2.62$)이었으며,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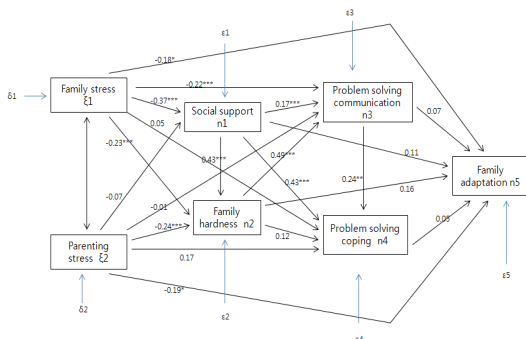
(Table 4)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Cincidence Index	χ^2 (p-value)	χ^2/df	GFI	AGFI	SRMR	NFI	NNFI	RMSEA
Optimal Model	p>0.05	< 3	≥0.9	≥0.9	≤0.05	≥0.9	≥0.9	≤0.05
Hypothetical Model	0.00(p=1.000)	0.00	1.00	1	0.000	1.00	1.00	0.000

<Table 5> Path coefficient, t-value and multiple correlation square value of hypothetical model

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Characteristic number (SE)	t	SMC
Social support	Family stress	-0.37(0.068)	-5.38***	0.16
	Parenting stress	-0.07(0.068)	-0.97	
Family hardness	Family stress	-0.23(0.058)	-3.89***	0.45
	Parenting stress	-0.24(0.055)	-4.43***	
	Social support	0.43(0.055)	7.74***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amily stress	-0.22(0.054)	-4.17***	0.57
	Parenting stress	-0.012(0.051)	-0.23	
	Social support	0.17(0.055)	3.14**	
	Family hardness	0.49(0.061)	8.11***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stress	0.05(0.066)	0.81	0.39
	Parenting stress	0.17(0.061)	2.74**	
	Social support	0.667	6.45***	
	Family hardness	0.12(0.083)	1.43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24(0.081)	2.90**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0.18(0.077)	-2.38*	0.18
	Parenting stress	-0.19(0.072)	-2.62*	
	Social support	0.11(0.086)	1.27	
	Family hardness	0.16(0.097)	1.6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07(0.096)	0.71	
	Problem solving coping	0.05(0.080)	0.63	

였다. 가족적응이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8%였다.<Table 5> 본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해는 [Figure 3]과 같다.



[Fig. 3]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3.5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가 직접효과($\gamma = -0.37, t = -5.38$), 총효과($\gamma = -0.37, t = -5.38$)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가족강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가 직접효과($\gamma = -0.23, t = -3.89$), 간접효과($\gamma = -0.16, t = -4.42$), 총효과($\gamma = -0.39, t = -6.18$), 양육스트레스가 직접효과($\gamma = -0.24, t = -4.43$), 총효과($\gamma = -0.27, t = -4.37$)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gamma = 0.43$,

$t = 7.74$), 총효과($\gamma = 0.43, t = 7.74$)가 유의하였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가 직접효과($\gamma = -0.22, t = -4.17$), 간접효과($\gamma = -0.25, t = -5.76$), 총효과($\gamma = -0.47, t = -7.75$), 양육스트레스는 간접효과($\gamma = -0.15, t = -3.58$), 총효과($\gamma = -0.16, t = -2.55$)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gamma = 0.17, t = 3.14$), 간접효과($\gamma = 0.21, t = 5.60$), 총효과($\gamma = 0.38, t = 6.86$), 가족강인성은 직접효과($\gamma = 0.49, t = 8.11$), 총효과($\gamma = 0.49, t = 8.11$)가 유의하였다.

문제해결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가 간접효과($\gamma = -0.32, t = -5.90$), 총효과($\gamma = -0.26, t = -3.66$), 양육스트레스는 직접효과($\gamma = 0.17, t = 2.74$), 간접효과($\gamma = -0.10, t = -2.10$)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gamma = 0.43, t = 6.45$), 간접효과($\gamma = 0.14, t = 3.71$), 총효과($\gamma = 0.57, t = 9.48$),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 = 0.12, t = 2.73$), 총효과($\gamma = -0.24, t = 3.19$),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직접효과($\gamma = 0.24, t = 2.90$), 총효과($\gamma = 0.24, t = 2.90$)가 유의하였다.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는 직접효과($\gamma = -0.18, t = -2.38$), 총효과($\gamma = -0.24, t = -3.51$), 양육스트레스가 직접효과($\gamma = -0.19, t = -2.62$), 총효과($\gamma = -0.23, t = -3.39$)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Table 6>.

<Table 6>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each predictor variable of hypothetical model

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Direct effect(t-value)	Indirect effect(t-value)	Total effect(t-value)
Social support	Family stress	-0.37(-5.38)***		-0.37(-5.38)***
	Parenting stress	-0.07(-0.97)		-0.07(-0.97)
Family hardness	Family stress	-0.23(-3.89)***	-0.16(-4.42)***	-0.39(-6.18)***
	Parenting stress	-0.24(-4.43)***	-0.03(-0.96)	-0.27(-4.37)***
	Social support	0.43(7.74)***		0.43(7.74)***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amily stress	-0.22(-4.17)***	-0.25(-5.76)***	-0.47(-7.75)***
	Parenting stress	-0.01(-0.23)	-0.15(-3.58)***	-0.16(-2.55)**
	Social support	0.17(3.14)***	0.21(5.60)***	0.38(6.86)***
	Family hardness	0.49(8.11)***		0.49(8.11)***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stress	0.05(0.81)	-0.32(-5.90)***	-0.26(-3.66)***
	Parenting stress	0.17(2.74)**	-0.10(-2.10)*	-0.07(-0.95)
	Social support	0.43(6.45)***	0.14(3.71)***	0.57(9.48)***
	Family hardness	0.12(1.43)	0.12(2.73)**	0.24(3.19)**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24(2.90)**		0.24(2.90)**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0.18(-2.38)*	-0.06(-1.40)	-0.24(-3.51)***
	Parenting stress	-0.19(-2.62)*	-0.04(-1.59)	-0.23(-3.39)***
	Social support	0.11(1.27)	0.01(0.25)	0.12(1.79)
	Family hardness	0.16(1.67)	-0.05(-0.95)	0.11(1.3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07(-0.71)	0.01(-0.61)	0.08(-0.85)
	Problem solving coping	0.05(-0.63)		0.05(-0.63)

* | t-value | >1.96(P<.05와 같음)

** | t-value | >2.58(P<.01과 같음)

*** | t-value | >3.29(P<.001과 같음)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가족강인성,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증진하고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4]과 [25], 암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14]과 [15], 고위험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26], 중국 입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4]의 연구에서도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32]의 연구에서 가족 내 무시와 소외감,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 부부간의 역할기대의 불일치로 오는 갈등을 가족 내 적응성 저해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가족적

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27]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에서 가족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족적응이 일정한 만큼 감소하며 가족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3], [7], 베트남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5]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13], [30]는 국제결혼을 한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내에게 경제적, 외출 등의 행동을 통제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언어적·신체적 폭력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31]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와 역할영역에서 나타난 시택과의 갈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은 낮아짐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문화적 어려움 및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촉진요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그 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과 남편 가족

내에서 아내 또는 며느리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적응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8]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3.06으로 내국인의 평균 2.88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5]와 필리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16]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미처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바로 임신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출산 후 올바른 양육방법을 몰라 힘들어하지만 남편들의 양육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감 및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농촌사회에 자문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2], [8]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역할로의 갑작스러운 이행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응에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 자원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 여성들은 출산 시에 친정어머니나 자매와 같은 가족 또는 전문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게도 모성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녀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33], 신중후군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18], 소아암 환자 가족을 대

상으로 한 [14], [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족적응에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한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강인성 및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친구, 가족 등 의미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가족강인성을 높이고 가족스트레스와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사건에 더 잘 대처하게 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해서 본국인들과의 만남 및 관계망을 피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한국여성개발원,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사회자원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한되거나 왜곡된 한국사회나 문화에 대한 지식,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적응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18]. [7]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의 부재로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22]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들의 방임적인 태도와 위계적인 가족구조에서의 불합리한 관계 및 적응 초기에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배려,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정생활 적응 전략에 대해 연구한 [19]는 남편이나 시댁 가족이 아내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막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적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적인 가족생활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태도와 가족들 간의 불합리한 관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복력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자원에 해당되는 회복력 요인으로서,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교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이주여성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자조그룹과 접촉하게 도와 주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자조모임의 구성을 통해 대처

행위를 배우고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 간호중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33], 소아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14]과 [21], 중국 입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4]의 연구에서 가족강인성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협동성, 통제성, 도전성,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동성이란 가족의 내적 힘에 대한 감각 및 협동하는 능력과 의지력을, 통제성이란 가족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도전성이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려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가족의 노력을, 자신감은 앞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감각, 노력에 대하여 인정받는다는 느낌, 고난을 견디는 능력, 흥미롭고 의미로운 인생 경험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겨나는 갈등 문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날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결여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강인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강인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우나, [20]과 [21]에 의하면 가족의 강인성은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조정과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가족강인성은 가족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강인성을 높이는 간호 중재 시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 등의 선행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의 양부모 가족 모형, [40], [43]의 단일부모 가족모형, 국내에서 소아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1]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한국 남편과 결혼이주여성은 언어문제로 인해 부부관계 및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부

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피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18]. [22],[34], [37]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적응을 어려워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나라의 언어를 배우 기회가 적고, 교재도 구하기 어려우며,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로 인해 아내가 한국말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2], [5], [1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는 초기 적응과정에서 한국어 공부의 기회가 적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변한 낯선 환경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통하지 않아 대화할 때 의미가 맞지 않고, 그로 인해 불화도 생겨 의사소통의 불편감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언어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 가족에게는 출신국가의 언어교육을 통해 가족 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가족의 강인성을 촉진하고 결속력을 높여주며 협동성과 통제감을 높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가족적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가족적응을 위한 회복력 요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시에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시 고려해야 할 의미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가족의 의사소통 형태를 파악하여 가족에게 감정이입, 지지적 반응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강인성 및 적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9], [21]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대처가 가족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문제해결 대처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 재구성, 영적인 지지의 추구, 가족 기동성, 수동적 평가로 구성되는데 사회적 지지의 추구란 친척, 친구, 이웃, 확대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능력을, 재구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더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을 재정의하는 가족의 능력을, 영적인 지지의 추구, 가족기동성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가족의 능력을, 수동적 평가란 문제 상황에 대한 회

피 반응과 같은 가족이 채택하는 수동적인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또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해서 본국인들과의 만남 및 관계망을 피하거나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한국여성개발원, 2006)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39]는 우리나라는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로 인해 시댁과의 갈등이 두드러지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부 간 갈등이 부부 관계적 요인 외에 주변의 시댁 식구나 형제자매와의 갈등과 연결되고,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원인과 개인 성격적 원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인해 대처행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3], [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인내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가출과 이혼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문제해결 능력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문제해결 대처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문제해결 대처를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제해결 대처행위는 배워지고 학습되는 것으로서 삶과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게 하므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간호중재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중재로 인지적 재구성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 느낌과 감정의 표현 등의 문제해결 대처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만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위한 간호중재는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방법을 교육하고, 가족 간 상호이해와 유대감 증진을 위한 상담과 주변의 관계망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회복력 모형은 적합도는 매우 높았으나, 가 회복력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는 가족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는 모두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서로 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과 한국 내 거주기간에 따른 분석 등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확인하고 회복력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대처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강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문제해결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의 적응을 돕는 간호중재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돕고,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회복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에 각 나라의 문화 및 가치관을 고려한 회복력 모형 검증에 제언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기간에 따라 한국거주기간을 고려한 회복력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B. S. Kwon, B. H. Cha,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3, pp. 109-134, 2006.

- [2] S. Y. K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intermarried women and their Korean spouses. A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9.
- [3] K. H. Kim,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 and family streng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1.
- [4] M. O.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Ph.D.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2001.
- [5] M. J. Kim, Qualitative Research o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s Family Resilience : Focused on Ulsan Metropolitan City. A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10.
- [6] S. A. Kim, An analysis of the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of the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emigrated into Korea by origin of country : focused on those women living in Namyangju city. 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9.
- [7] O. N.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6.
- [8] J. Y. Kim, Parenting Stress and Coping Style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09.
- [9] H. N. No,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 Focusing on the Acculturation Pattern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A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2007.
- [10] M. Moon, A Study o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e Family. A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2010.
- [11] E. H. Moon, A study for leisure participation and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07.
- [12] H. S. M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amily resiliency improvement program for improving family adaptation of person with brain injury. Ph.D.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 [13] J. K. Park, The Analysis of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Health society research, Vol. 31, No. 3, pp.104-139, 2011
- [14] I. S. Park, Relations hips of family value , family hardiness and family adaptation in family who has child with cancer.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1.
- [15] I. S. Park, Y. R. Tak, & J. A. Lee, Effects of family value on family adaptation in family who has a child with cancer.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Vol. 7, No. 4, pp. 494-510, 2001.
- [16] E. M. Park, S. S. Kim, & S. H. Park, Th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by Filipino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focus on the experiences of rural wom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8, No. 4, pp. 147-167, 2011.
- [17] B. R. Ba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 CheongRam Publishing. 2011.
- [18] M. H. Sung, A Study Burd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a Child with Nephrotic Syndr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0, No. 3, pp. 670-681, 2000.
- [19] B. H. Song, Adaptation Strateg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y Culture in Korea through Family culture in Asian Countrie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12.
- [20] J. K. Song, A Study on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Epilepsy and Adaptation of Family : With Family Coherence and Family Hardiness. Ph.D.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2003.
- [21] M. K. Sim, Testing of resiliency model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22] S. M. Yang, A stud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in

-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8.
- [23] A. Y. Oh,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multi-cultural family. A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1.
- [24] Y. Lui, Verification Effect of Resilience Model on Family Adaptation in the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 Focused on the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in China. Ph.D.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2012.
- [25] K. H. Lee, A structural model for maternal adaptation and family stress in families with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2.
- [26] N. H. Lee, Model of stress and adaptation in the parent's with high risk infant. Ph.D.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2005.
- [27] S. Y. Lee, The influence of family stress on family adapt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with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08.
- [28] S. K. Lee, Prediction model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2.
- [29] H. K. Lee,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Issues, Problems, and Respons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8, No. 1, pp. 73-106, 2005.
- [30] E. A. Jang, Y. Choi,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identit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 No. 3, pp. 1-25, 2010.
- [31] O. J. Jang, A study on marital-lif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men.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7.
- [32] J. K. Chang, J. M. Jeon, & Y. K. Shin, Analysis of Resili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7, No. 6, pp. 21-38, 2009.
- [33] M. Y. Jeon, A Study of the Resiliency in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Cancer Deceased,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1996.
- [34] O. H. Chae, D. A. G. Hong, Case study on the conflicts faced by the husbands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life science, Vol. 17, No. 5, pp. 891-902, 2008.
- [35] K. H. Choi,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process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06.
- [36] Y. R. Tak, H. Y. Lee,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Family who has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3, No. 1, pp. 42-51, 1997.
- [37] G. S. Han,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Vol. 39, No. 1, pp. 195-219, 2006.
- [38] K. S. Han, The main cause which effect to the fostering stress of the female married immigrant. A master's thesis, Hanam University. 2008.
- [39] M. G. Hong,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Ph.D.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2009.
- [40] Leske, J. S., & Jiricka, M. K. (1998). Impact of family demands and family strengths and capabilities on family well-being and adaptation after critically injury.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7(5), pp.383-392.
- [41] Robinson, J. (2007), *Resilience in remarried families*. Master Dissertation, Nelson Mandela Metropolitan University.
- [42] McCubbin, M., & McCubbin, H. (1996), Resiliency in families : A conceptual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in adaptation in response to stress and crisis. In H. McCubbin, A. Thompson, & M. McCubbin(Eds),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43] McCubbin, H. I., Thompson, A. I., Thompson, E. A., Elver, K., & McCubbin, M. A. (1994). Ethnicity, schema and coherence : appraisal processes for families in crisis. In H. McCubbin, A. Thompson, & M. McCubbin(Eds),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dadptation -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44] McCubbin, H. I., Thompson, A. I. & McCubbin, M. A.(1996).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45] Weiss, M. J.(2002), Haedin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stress in mothers of typical children, children with autism, and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utism*, 6(1), pp.115-130.
- [46] <http://www.kostat.go.kr>.

오 재 우(Oh, Jae Woo)



- 200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4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0년 3월 ~ 2012년 11월 : 건양대학 병원 간호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스트레스
- E-Mail : love_token@hanmail.net

박 인 숙(Park, In Sook)



- 197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7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0년 2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78년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아 가족, 부모- 자녀관계
- E-Mail : ispark@cnu.ac.kr